

기후환경·에너지 신기술, 광주로 총집결 한다

오늘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개막...265개 기업 참가 광주경자청 '홍보관' 운영...강연·수출 상담회·정책설명회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환경 보호 제품이 한 곳에 모이는 호남권 최대 규모 산업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8~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 2024)'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함께하는 ESG, 참여하는 KEET"를 슬로건으

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기후 변화 대응·친환경에너지 전환·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ESG 가치의 핵심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르는 기술과 정책을 소개한다. 올해는 동반성장 페어·수출상담회·지역혁신클러

스터 등 기업간거래(B2B) 상담회를 통해 공기업 위주 전시회에서 지역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기후 포럼과 시민참여 행사도 새롭게 선보인다. 총 265개 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수소 환원 제철 기술과 에너지 예측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전시한다. 광주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의 첫 전기차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민에게 처음 공개하며 전기차와 수소 버스 체험 프로그램 등도 선보인다. 또 동반성장 페어에는 대기업 80개 사와 중소기업 127개 사가 참여해 기업 간 매칭과 정책설명회를 하며 판로 개척 기회 등도 제공한다.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세미나와 포럼에서는 ESG 경영 우수사례부터 신기술 소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광재식 송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한국은 왜 기후 환경 에너지를 해야 할까?"를 주제로 강연한다. 파세지 열쇠고리·친환경 비누·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만들기 등 시민 참여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이 밖에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기업들과 함께 '광주 공동홍보관'을 운영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에너지·환경 분야 유망기업인 트로닉스와 삼도환경, 이삭에너지, 리치룩스 등이 참가해 시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

고, 공동홍보관을 찾는 바이어와 관련 기업과의 기술 제휴·비즈니스 협력 등의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홍보관에는 광주경자청 투자유치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상주해 투자 전문성을 높인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의 시제품과 신기술을 홍보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이 2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연지 레미안어반파크 지하주차장에서 열려 소방대원들이 견인한 화재차량을 이동식침수조를 이용해 소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철회하라”

광주시의원들 공동 성명

광주시의원들은 27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고 지역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전과 산업부가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해 호남·제주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사실상 7년간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변전소 여유 용량이 남는 광주지역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계통 통제로 발생할 지역 경제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호남과 제주 변전소 대부분이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고 전력 계통 접속이 제한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63만명 방문’ 전남 해수욕장, 인명사고 ‘제로’

올해 힐링·팻캉스 등 테마형 운영에도 철저한 안전 관리 주효

올해 전남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곳은 25만5000여명이 다녀간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었다. 올 여름 51일간 운영된 전남 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는 모두 6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0% 증가했으며, 시·군별로는 완도, 여수, 고흥 순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름 장기간 지속된 장마, 극한 폭염, 해파리 출몰 등 해수욕장 운영에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 액티비티, 팻캉스 등 해수욕장별 특장점을 부각한 테마형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도내 해수욕장 입장객이 다소 증가했다. 해양치유 페스티벌, 고기잡기 체험행사 등 전남만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행사들이 피서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셈이다. 시·군별 이용객은 완도, 여수, 고흥, 신안, 보성 순으로 많았다. 해수욕장별로 해양치유 명소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모래조각 전시, 플라잉 보드쇼, 해양치유 치맥페스티벌 등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각종 행사를 선보이며 25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이어 접근성이 높고 각종 해양레저스포츠를 무

료로 체험할 수 있는 '여수 웅천 해수욕장' 7만 5000여명, 해수욕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실내외 바깥길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보성 울포 해수욕장' 4만3000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또 예산 29억원을 들여 안전장비 4천여 개 배치, 해파리 구제, 편의시설 정비, 수질·환경조사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명사고 제로를 기록했다. 박태권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올여름 전남 해수욕장을 방문한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한아름 안고 가셨길 바란다"며 "2025년에는 더욱 다채롭고 이색적인 콘텐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더 많은 방문객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부장 선도기업 DH오토웨어 광주에 1000억원 투자

광주시·DH오토웨어·KT 협약 자율주행 전장부품 개발 등 나서

자동차 전장기업 DH오토웨어가 광주 자율주행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1000억원 투자를 한다. 광주시, DH오토웨어, KT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과 함께 이뤄진 LG이노텍, 한국알프스와의 협약에 이은 확대 조치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고 인지(센서)·제어·통신 기술을 특화하기로 했다. DH오토웨어는 제어, KT는 통신 분야에 참여한다. DH오토웨어는 2028년까지 광주 소부장 특화단지에 10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전장부품 개발과 양산에 나선다. KT는 자율주행 2030년까지 통신 분야의 소부장 국산화율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DH오토웨어는 현재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에 연면적 7895㎡ 규모의 자동차 지그(JIG) 생산업체를 가동하고 있다. 지그는 기계 가공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다. 경기 평택공장의 전장사업부도 광주로 이전하기로 하고 빛그린 산단 1만4916㎡를 추가 매입했다. 내년 3월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지역 인재 2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가 미래차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DH오토웨어와 KT가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며 "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